교육의 혁신, 고교학점제 2022년 도입

60개 연구학교서 3년간 시범사업 운영

학교당 매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교육당국이 교육과정과 학교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학교로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60곳을 지정해 내년부터 3년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고교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중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한뒤 누적 학점이 일정기준에 이르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중인 서울 강서구 한서고등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과 1차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줄세우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실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과 인적·물적 인프라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학교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각 30곳씩 총 60곳이 지정·운영된다. 교육부는 지역별·학교 규모별로 적합한 운영 모델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교 소재지, 교육과정 운영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학교를 균형있게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학교당 매년 4000만~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연구학교는 교육과정, 평가, 졸업제도 등 고교학사제도 전반을 학점제형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현행 졸업기준을 출석일수에서 학점으로 바꾸는 방안 등 졸업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학점제 전면 도입 시 필요한 교원·시설 등 인프라를 파악하고, 교원이 관련 전공 내에서 다양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임용·연수 등 교원 제도의 장기적인 개선방향도 연구한다.

일반계고 연구학교는 학생들의 진로·학업 수요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개인 시간표를 구성하는 '수강신청제'를 도입하고, 개인맞춤형 학습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직업계고 연구학교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기술·지식·태도 등을 산업부문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적용된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관련 정책연구, 제도 개선, 현장 의견수렴 등 준비 상황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과정을 지원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또 현재 수강자가 13명 이하인 경우에만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돼 있는 각 시·도 교육청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성적산출 방식을 내년부터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아예 산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한서고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져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과 평가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북대 해외봉사단 현장프로젝트 성과

기획공모전서 최우수팀 선정

지원금 최대금액 1만달러 획득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는 해외봉사단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KUCSS)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학생 해외 봉사단 현장 프로젝트 기획 공모전에서 최우수 팀으로 선정됐다.

전북대 지미카터국제학부 조욱래, 오지은 학생과 동물자원학과 임미영, 정세욱 학생 등 5명으로 구성된 'U토피아'팀은 유효미생물을 이용한 유기퇴비 적정기술 적용 및 지식나눔을 통한 카바뇰로 농장과 마지제 마을의 농업발전에 목표를 둔 프로젝트를 제안, 우간다 파견 팀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원금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만 달러를 받았다.

이번 성과로 U토피아팀은 효과적인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프로젝트 지원금을 활용, 유기퇴비 교육장을 건설하고 인근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농업기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학생들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월드프렌즈 청년 중기봉사단' 일원으로서 우간다 와키소주 마케레레대학교 카반뇰로 시범농장에서 농업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농민들에게 적정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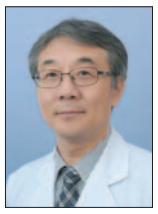
월드프렌즈 청년 중기봉사단은 올해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우간다,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에 대학생 163명을 파견,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개발 협력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쌓도록 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해외 교류로 학회 위상 높일 것"

대한골관절종양학회장에

전북대 김정렬 교수 취임



전북대학교 김정렬 교수(의대 정형외과·사진)가 대한골관절종양학회 제17대 회장에 취임했다.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대한관절종양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에 들어갔다.

회장 임기는 내년 11월까지 1년이다. 대한골관절종양학회는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종양을 연구하기 위해 1990년 창립됐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 1997년부터 20여년동안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역 건강 증진 및 후진 양성에 힘써왔으며 꾸준한 연구 활동을 통해 80여편의 SCI 논문을 게재했고 유럽소아정형외과학회 최우수논문상, 대한골관절종양학회 우수논문상,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지금까지 활발한 학회활동을 통해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 편집부위원장, 대한정형외과학회 고시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부원장을 역임했다.

김정렬 회장은 "적극적인 해외 교류를 통해 학회 위상을 높이고 학회 회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앞으로 해외학회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해은 기자

익산의 자녀들, 전국 드론축구대회 상 싹쓸이

용성초등학교, 1·2·3위 차지… 올 들어 세번째 우승 쾌거

익산 용성초(교장 민완성) 어린이들이 또 한번 전국대회를 휩쓸었다.

27일 용성초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2017 협회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 코딩드론부문에서 용성초 어린이들이 1,2,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이번 대회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협회장으로 발족한 전국드론축구협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대회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분위기 확산과 첨단 우주항공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용성초교는 드론코딩 부문에서 6학년 정지민이 1위, 6학년 전수민이 2위, 6학년 김영현이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용성초교는 지난 4월 16일 군산에서 열린 RCIN REPORT 학생 조종 드론 전국대회와 5월 27일 안성에서 열린 2017코리아컵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에서도 우승을 한 바 있어 명실공히 전국 드론축구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작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시작한 용성초교는 강방용 교사의 헌신적인 지도로 2016 공군참모총장기 전국대회와 전북드론대회 등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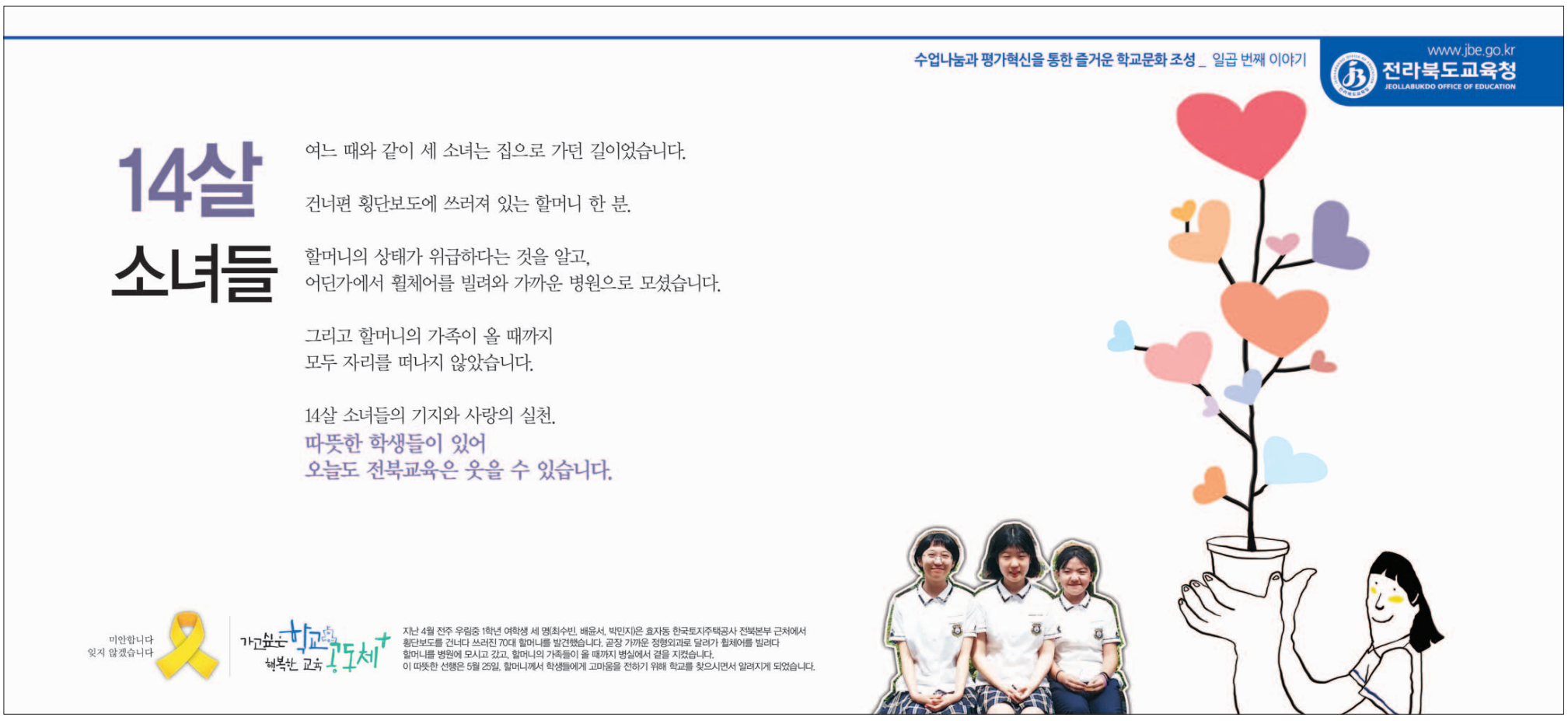
한편 전교생 15명의 농촌 작은학교인 용성초는 어울림학교를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과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첨단 항공우주교육으로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변모하고 있으며, 익산의 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여울초 합창단, 미래교육박람회 개막공연 성료

전주여울초등학교(교장 강철성) 꿈여울 합창단(지도교사 정소희)은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 박람회에 다녀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여 진행되는 23일부터 25일까지 펼쳐진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 박람회'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주제와 '혁신을 위한 상상력, 교육의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하여 교육의 미래를 살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개막식에는 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여울초 꿈여울 합창단 개막공연을 펼쳤다.

꿈여울 합창단은 정소희 지도교사가 직접 작곡한 '즐거운 가족캠핑'외 '비타민친구', '우리 모두 자전거를 타요'를 깜찍한 안무와 함께 불러 많은 환호와 박수를 받아 교육의 미래를 여는 박람회의 시작을 빛낼 수 있었다. /정해은 기자